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예전 어른들이 종종 “그 사람은 교양머리가 없어!”라는 말을 하던 게 떠오른다. 염치가 없고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힐난하는 말이었다. 그건 행동거지가 제멋대로인 막돼먹은 사람, 인품이 조악하고 꼴을 사람이라는 낙인이다. 그런 이들과는 인연을 끊는 게 마땅하다는 선언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격 미달의 인간이라는 암묵적 합의일 테다. 그러니까 ‘교양머리가 없다’는 말은 사람의 품성과 인격에 대한 무섭고 신랄한 평가였던 셈이다. 언제부터인가 사람 뒤편이를 자는 척으로서의 교양이란 말을 더는 쓰지 않게 되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그건 교양이 현실에서 더는 유용하지 못한 상태로 죽어버린 탓이다.

교양은 원시 채집시대 인류가 아니라 현대를 사는 인간들이 찬양해낸 산물이다. 교양은 말과 태도의 우아함이고, 태도의 실행 속에서 드러나는 기품이자 기억과 지식의 축적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혁신의 결과물이다. 그건 질서와 내면 도덕의 발현이며 고차원의 사회

그건 교양이 아니에요

생활의 기술이자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덕목이다. 교양이란 고등 생명체로 진화에 성공한 인간 무리가 합의한 우아한 행동양식이다. 항상 현재 안에서 작동하는 우아함이란 점에서 교양은 정태(靜態)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교양의 반대는 무교양이다. 따라서 교양머리가 없다는 것은 인격의 막돼먹음이고 파렴치한 행실을 일삼는 것을 뜻한다. 무교양 사회는 미개하고 탈법과 무법이 판을 치는 후진 사회이다. 혼돈과 무질서가 지배하는 사회, 더 나아질 가망이 없는 사회, 도덕과 상식이 퇴행하는 사회가 무교양 사회다. 교양은 지식의 유무나 학력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는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것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고, 예의와 교양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사회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교양이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이고 배우고 몸에 익힌 태도이다. 또한 도덕적 일탈을 막는 내면 기술이고, 제 행동을 통제하는 권력이다. 교양은 처세의 기술도 아니요, 도덕적 의무도 아니지만 그것은 언어능력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수단이다. 교양이 양심에 있던 의식, 도덕과 품성, 타인을 포용하는 능력, 기본 좋은 매너를 아우를 때 비록 그것이 현실에서 써먹을 데가 많지는 않더라도 우리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다.

교양사회에서는 국가의 통제 권력이 마비된 무정부 상태도, 군중이 폭도로 변해 난동을 일으키는 사태도

없을 테다. 교양은 무례하지 않고, 사회 규범을 존중하며, 성실한 이들의 가치관을 존중한다. 교양은 한쪽 이념으로 치우치거나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으며 폭력을 수단으로 무언가를 도모하지 않는다. 교양은 사회의 혼돈과 무질서에 부화뇌동하지 않으며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불법 사태를 용납하거나 동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큰소리치며 활개를 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무법과 혼돈이 뒤섞인 사회, 탈법적 폭력으로 무언가를 도모하는 사회가 교양사회일 수는 없다.

막달, 난동, 폭력, 탈법, 갑질, 거짓, 허언... 그런 것들은 교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막장 현실의 징후들이고 막돼먹은 사회가 최후에 드러내는 아노미 현상이다. 그 반대가 예의바른 태도, 겸손, 타자에 대한 관용,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식의 의젓함을 갖춘 이들이 협업하며 만드는 교양사회다. 교양이 문화, 웰빙, 덕성을 압박한 것이라면 그것은 삶을 경이로 바꾸는 기품이고 기쁨일 테다. 그것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서의 삶 그 자체다.

교양을 가진 어른들과 함께 살던 시절이 그림자다. 어른들은 점잖고 웃음과 유머가 있었으며 태도에는 기품이 있었다. 존경을 받을 만한 어른들 앞에 서면 절로 고개가 숙여졌던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품격 있는 말과 행동으로 움직이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교양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갈망한다.

社說

전남 재생에너지 글로벌 경쟁력 확보했다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메카인 전남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패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전남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다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목표의 37%를 책임지고 있지만 송배전망 부족으로 계통포화와의 허가 지체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에너지 3법이 시행되면 정부 주도하에 송배전망이 확충되고 지역 주도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가능해 전남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발전량을 바탕으로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전선로 하나를 짓는 데 최장 12년 6개월이 걸리기도 하는 상황에서 전력망 확충이 도입되면 행정절차가 획기적으로 줄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요가 많

은 수도권으로 남비 없이 보낼 수 있게 된다. 전력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도 있어 데이터센터 등 전력 과소비 기업 유치도 유리하다. 때마침 해남에 세계 최대인 3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추진된다는 뉴스가 전해진 것도 이런 법적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해상풍력도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조사 불필요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다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목표의 37%를 책임지고 있지만 송배전망 부족으로 계통포화와의 허가 지체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에너지 3법이 시행되면 정부 주도하에 송배전망이 확충되고 지역 주도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가능해 전남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발전량을 바탕으로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전선로 하나를 짓는 데 최장 12년 6개월이 걸리기도 하는 상황에서 전력망 확충이 도입되면 행정절차가 획기적으로 줄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요가 많

광주 노후 소방청사 개선 사업 시급하다

광주시 소방청사 세 곳 중 한 곳은 지어진 지 20년 넘는 노후 청사로 개선이 시급하다. 화재는 갈수록 대형화하는데 소방청사는 날로 노후화해 화재 대응에 취약한 탓이다.

광주소방본부 전체 청사 34곳 중 11곳은 준공 이후 2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첫 소방서인 동부소방서는 1922년 광주역(驛)사 자리에 세워졌는데 6·25 전쟁 도중 폭격으로 소실됐다가 1952년 재건축, 1971년 9월 증축한 이후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서부소방서도 1922년 준공된 뒤 39년이 지났고, 광산소방서 역시 1989년 준공한 뒤 36년 세월이 지났다.

준공 30년이 지난 소방청사도 6곳에 달하는데 소방장비 보관 공간이 부족하고 신형 장비를 도입하는 데도 장애가 되고 있다. 건물 자체가 수십 년 전 근무 환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는 반면, 소방 인력이 늘고 소방장비 규격이 커지면서 근

무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투입한 환경개선사업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교부세는 예산이 한정된 데다 매년 교부금 변동이 생길 수 있어 불안정하며 노후 소방서 일수록 건축물 보강 공사 등 예산이 많이 투입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사 신축·이전·개축 등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화재 등 갈수록 대형화 추세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선 이에 걸맞은 청사는 물론 장비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당면하다. 관계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광주소방본부·서부소방서 합동 청사 건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재난 대응에는 한 치의 허점도 허용되지 않는 만큼 열악한 여건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연약하면서도 무거운 선물

다. 자기를 헌신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돌보는 것을 우선하는 이들의 고귀한 신념이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은 길이다.

필자가 매일 보고, 번역하고, 묵상하는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라는 책이 있는데, 어느 날 이런 문장을 발견했다. ‘신앙은 연약하면서도 무거운 선물이다’라는 문장이다. 왜 신앙이 연약하고 무거운 선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신앙이 ‘연약한 선물인 이유’는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쉽게 흔들릴 수 있으며,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요할 수 없는 이유’는 신앙은 지식이나 논리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이유’는 고통이나 시련 그리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거나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한 이유’는 신앙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만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인데 때때로 의심과 갈등을 겪는다.

신앙이 ‘무거운 선물인 이유’는 삶의 방식과 책임을 요구하고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며, 진리에 대한 성실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삶의 방식과 책임을 요구하는 이유’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책임이 따르는데,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 삶과 세상에 도전이기 때문이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이유’는 진정한 신앙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삶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성실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와 신앙이 충돌할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십자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무겁지만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가치인 ‘영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가톨릭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다. 그러나 그 무거움을 받아들일 때 신앙은 우리를 더욱 깊은 기쁨과 행복 그리고 평화로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다. 히브리어에서 ‘무겁다, 무게가 있다’는 말은 물리적 의미를 넘어 중요성, 가치, 권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무겁다’는 하나님의 영광, 권위, 위엄을 뜻한다. 그래서 신앙이 ‘무거운 선물’이라는 개념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류를 위한 무거운 영광을 짊어지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진정한 영광이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게가 있으며 책임과 희생이 따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삶은 선물인가. 그렇다면 어떤 선물인가. 마치 못해 살아내야 하는 선물인가. 아니면 너무나 소중해 가지고 귀하게 살아내고 있는 선물인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면서 이기심으로 가득 차 항상 경쟁의 시선으로 자신을 혹사 시키면서 살아내는,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선물인가. 작고 연약하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영광이 깃든 무거운 선물인가. 그런데 이 삶의 선물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기고

농촌의 또 다른 숙제, 폐 농기계 체계적 관리



김주웅
전남도의원

방치 농기계에 남아 있는 기름과 윤활유는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시간이 지날수록 버려진 폐 농기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농기계 지원이 확대됨과 동시에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 수도 늘어나고 농업 인구 감소함에 따라 폐 농기계를 관리할 인력도 부족해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방치된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농업기계 처리는 기초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자체는 방치된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재활용 및 폐기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방치 농기계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둘째, 방치된 농기계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사용이 끝난 농기계라도 일부 부품은 여전히 재활용될 수 있으며 적절한 정비 과정을 거치면 중고 농기계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협력해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 농기계를 수리한 후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새로운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원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농기계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농민들이 농기계를 방치하는 이유 중 하나는 폐기 방법을 몰라서이기도 하다. 농기계의 올바른 폐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방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와 법적 책임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버려진 농기계 문제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농업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 수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방치된 농기계 문제는 이제 외면할 풍경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지역·사회적 과제다. 공동체 문제로 보고 지역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방치된 폐 농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수거·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돼야 하며 농기계의 수명 종료 이후까지 고려한 농업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방치된 농기계가 농촌의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해결할 때다.

無等鼓

광주는 역시 광주였다. 지난 15일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인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지켜본 광주시민들의 태도는 ‘광주다웠다’로 평가할만하다.

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도한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2만여명이 몰려들어 윤 대통령의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30~40여명 단위로 금남로 일대로 이동하면서 “광주 빨갱이 나와라” “죽여, 죽여”를 외치기도 했다. 손에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귀가 적힌 종이나 깃발을 들

고 구호를 외치며 이동했다. 인근의 시민을 향해서는 광주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손에 든 태극기와 성조기로 시민의 머리 등을 때리기도 했다. 곳곳에서 욕설이 터져나왔고, 이들의 막무가내 행동에 항의하는 시민도 많았다. 이들은 마치 싸움을 걸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같았다.

무엇보다도 금남로 3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입구의 5·18사적지 표지석을 밟고 서서 표지석과 인근 화단에 침을 뱉

는 행위는 모욕에 가까웠다. 집회가 끝난 이후 표지석 인근에 조성된 화단은 온통 짓밟혀 있었고 5·18 왜곡·폄해 인세물이 버젓이 배포됐다. 이 인세물에는 첫 장부터 ‘5·18은 DJ세력·북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주장이 담겼고 5·18 가짜 유공자살, 북한군 투입설 등 5·18을 왜곡·폄해하는 내용도 눈에 띄었다.

집회 도중 금남로공원, 금남로4가역 교차로 등지에는 ‘가짜 유공자살’ 등을 내세워 5·18을 폄해하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현수막에는 ‘5·18에 북한 개입은 사실, ‘현재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주최측인 세이브코리아에서 내건 현수막과 나란히 걸려 있었다. 목사의 기도과 찬송가를 시작으로 집회가 시작됐는데 목사는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광주를 욕보였고, 군중 속에서는 ‘할렐루야’와 ‘아멘’이 터져나왔다.

우리는 이같은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 이들은 게임군의 총괄보다 더욱 끔찍한 저주를 광주에 퍼부었지만, 광주는 1980년 5월 그날처럼 성숙했다고... /오광록 서울본부 부장 kroh@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